익산 박물관 3곳, 정부 공립 평가 '인증'

문체부, 왕궁리유적전시관 · 마한박물관 · 보석박물관 인증기관 선정

전시개최 · 교육프로그램 실시 성과 · 관리 충실성 부분서 높은 점수

세계유산 도시 익산의 박물관 3곳이 정부의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인증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왕도역사관 소속 왕궁리유적전시관 · 마한박물관과 보석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9년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 그룹의 서면평가를 비롯해 두 차례의 현장 평가, 인증심사위원 회의를 거쳐 실시됐으며 전국 227개 평가 대상기관 가운데 157곳이 인증기관으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선정된 박물관 3곳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사업 평가에서 전시개최와 교육프로그램 실시 성과, 자료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왕궁리유적전시관은 백제왕궁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발굴성과를 소개하고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전문박물관으로, 특별전을 비롯해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무왕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여름방학 캠프', '전통의상 입고 어좌 체험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의 역사문화를 알리고 있다.

백제시대 이전 마한시기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마한박물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에 진행하는 공예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전시를 통해 익산에서 꽃피웠던 마한문화를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의 대표산업인 보석을 감상할 수 있는 보석박물관은 주말마다 각종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공룡을 만날 수 있는 화석박물관도 함께 위치해 있어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이다.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프로그램과 충분한 볼거리를 앞세운 익산시는 이번 공립박물관 '인증 기관' 선정으로 관광객 유치에 한껏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수헌 왕도역사관장은 "이번 성과는 직원 모두가 박물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익산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이 고품격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컨템포디보 with 마이티의 여름 콘서트' 24일 김제문예회관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컨템포디보 with 마이티의 여름 콘서트'를 개최한다.

컨템포디보는 테너, 바리톤 등 5명의 남자 성악가들로 구성된 팝페라 그룹으로 연간 100회 이상의 공연을 하고 있으며, 비트박스 세계챔피언인 마이티와의 콜라보는 최고의 감동을 전한 무대로 호평을 받으며 국내의 방송사 및 다양한 공연무대에서 초청공연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해외 공연무대를 통해 전세계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번공연은 '보컬플레이' MVP 수상곡인 "Circle of Life & MY heart will go on"와 마이티의 Beatbox 세계대회 우승곡 등,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권오현씨와의 특별무대를 선보인다.

/김제=곽노태기자

'도자기에 핀 눈물꽃'

역사문화해설사 김양오씨, 역사동화 발간

남원 아이쿱 생협 소극장서 오늘 출판기념회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의 삶 다뤄

남원에서 10년동안 역사문화 해설사로 활동해 온 김양오(51 · 사진)씨가 역사동화를 발간하며 남원 아이쿱 생협 소극장에서 9일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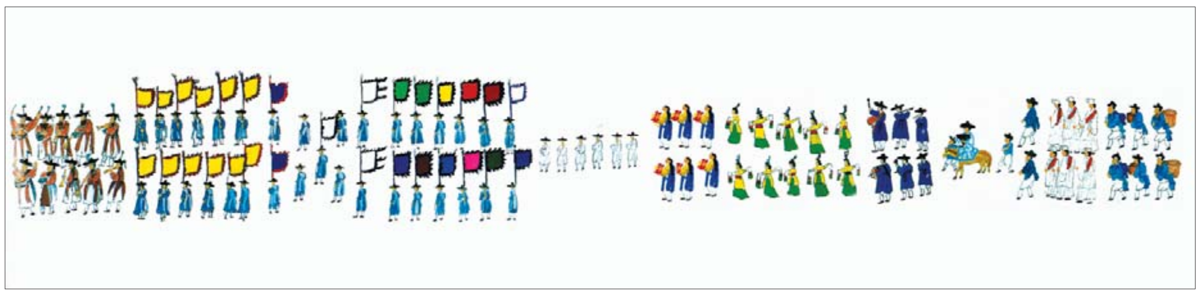
책 제목은 '도자기에 핀 눈물 꽃'으로, 정유재란 당시 남원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의 삶을 다루고 있으며, 당시 가장 슬픈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는 남원성 전투와 지금도 만인의총을 비롯한 아픈 흔적을 담고 있다.

김 작가는 남원성 전투에 대해 10여년 동안 해설해 오면서 늘 마음의 짐처럼 글을 써야겠다는 숙제를 안고 있던 중,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한겨레 아동문학 작가학교(1기)를 졸업한 뒤 25년만에 첫 작품으로 이 책을 냈다.

특히, 책을 내기까지 자료수집부터 심수관 가문이 400년 넘게 도자기를 빚으며 살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 현지 취재기까지 흥미진진한 집필 이야기가 펼쳐졌다.

한편 김 작가는 "이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이 역사를 어려운 시험의 대상이 아닌 조상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느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성황대신 사적현판 성황사-영신행렬도

'순창 단오제'의 옛 모습, 옛 사적현판으로 살펴보기

순창읍 백산리 대모암 자타불이각 전시실서

'성황대신 사적현판 기획전시회' 12월까지

순창군이 지역문화의 우수성과 군민 자긍심 함양을 위해 12월까지 6개월 동안 순창읍 백산리 대모암 자타불이각 전시실에서 '성황대신 사적현판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고려시대 이후 약 700년간 순창 단오제와 성황신앙의 역사가 목판에 기록된 '성황대신 사적현판(국가민속문화재 제238호)'과 단오제가 거행된 공간이었던 홀어머니산성(대모산성,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70호)의 발굴조사 관련 사진자료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성황대신사적현판은 가로 180㎝, 세로 54㎝의 송판(松板) 2장으로 1743년에 만들어졌으며, 한문과 이두문으로 73행 1,600여 자가 기록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단오제 연혁이 새겨진 유물이다. 고려 충렬왕 때 첨의중찬(僉議中贊, 현재의 국무총리)을 지내고, 청백리로 추앙받았던 설공검(薛公儉, 1224~1302)이 세상을 떠난 후 그를 성황대신으로 신격화하여 모시고, 매년 단오절을 전후하여 순창의 호장, 향리, 백성들이 대모산성에 올라 단오제(일종의 기우제)를 올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현판은 1940년대 일제의 탄압으로 성황사(城隍祠)가 멸실되면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가 1992년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에 의하여 금과면 순창설씨 제각에서 발견되는 등 수난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시를 통하여 고려에서 조선시대 '단오제' 거행 장소인 홀어머니산성과 성황대신 사적현판의 밀접한 연관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향후 '단오제'의 복원과 재현을 위한 학술연구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순창군은 군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 및 지역문화 알리기를 위해 다양한 기획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9일 재단 회의실에서 군장대학교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기전 대표이사와 이계철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 실무역량 강화

전북문화관광재단-군장대,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체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9일 재단 회의실에서 군장대학교(총장 이계철)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기전 대표이사와 이계철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의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및 실무역량 강화, ▲교수 및 성인학습자의 현장 연수 및 현장실습 교육, ▲성인학습자를 위한 산학 연계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형 수업 운영 등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군장대학교와의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철 총장은 "산업협력으로 성인 학습자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나 문화예술교육팀(063-230-745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우리의 전통, 그 결을 잇다'

익산 보석박물관, 11일부터

한국무형문화재 전수자 展

한국무형문화재 전수자 展(전통, 그 결을 잇다.)은 한국의 문화적 소산과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큰 전통 기술을 잇는 무형문화재 전수자 8명의 작품들을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전시작품들은 연옥 봉잠 및 은제 고부조타출봉황문 주전자, 은제 오동잎 상감 접시 등 총 60여점으로 관람객들에게 전통의 소중함을 알리는 기회가 된다.

무형문화재 전승 공예 종목으로는 옥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옥 공예품을 제작하는 옥장, 금속 표면을 장식하는 조각장, 신분에 따라 각각 여러 종류의 작은 칼을 만드는 장도장, 금을 두드려 얇게 만든 후 왕실의 의복이나 기물에 문양으로 길상을 표현해왔던 금박장,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만든 놋쇠에 열을 가하며 망치로 두드려 질 좋은 방짜유기를 제작하는 유기장, 목가구의 결합 부분을 보강하고 미적 아름다움과 열고닫을 수 있는 금속제 장식을 만드는 장인 두석장 등이 있다.

또한 전시에 참여하는 전수자 중 전통기법으로 재현한 작품뿐 아니라 전통과 현대적 기법으로 금박과 비단, 천연 산호를 주재료로 제작된 금박장 전수자 창작품(제목:익산보석박물관)과 세계유산 백제 역사유적지구 '보석의 도시, 익산'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는 침선장 전수자 작품까지 추가 준비해 전시의 질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유은미 보석박물관장은 "한국 전통공예의 맥을 잇고자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의 뜻 깊은 작품들이 전시되오니, 기간 동안 방문하셔서 세계유산 백제왕도 '보석의 도시 익산'의 역사 문화를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석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와 실내외 소독을 실시간 진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및 보석박물관 홈페이지와 보석박물관 전시기획계(T:(063) 859-4772~3)에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고종상시호옥보(김성운作, 사진 왼쪽)과 금은장환쌍용문갖은맞배기도(백남중作).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국립민속국악원, 작은 창극 '춘향-봄날, 사랑 노래' 공연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국악연주단 정기공연으로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예원당에서 작은 창극 '춘향-봄날, 사랑 노래'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영원한 고전인 춘향전에서 춘향과 몽룡이 만나는 장면부터 이별하는 장면까지를 담았으며, 줄거리는 도창이 중심이 되어 이끌고 춘향과 몽룡을 제외한 캐릭터는 도창의 소리에 무용수가 연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립민속국악원 류기형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대형 창극의 틀에서 벗어나 등장인물을 최소화해 각 캐릭터들의 섬세한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둔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극강의 몰입도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관람은 사전 예약제(선착순 150명)로, 예약은 전화(063-620-2324)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가능하다.

왕기성 원장은 "공연 전 감염예방교육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모두가 안전한 공연관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